

일본평론원 중국 생체 장기적출 현장 목격



▲ 6월 20일, 젠위안초는 동경에서 대기원인터뷰를 받았다.

[밍후이왕] 젠위안초는 15년전 무의식간에 중공의 생체장기적출의 내막을 요해하게 됐다. 젠위안초는 금년 6월 20일 동경에서 대기원의 인터뷰를 통해 2007년 그가 중공의 생체장기적출 현장을 목격한 상황을 말했다. 젠위안초는 한 인터넷 유명인으로서 트위터에 22만 구독자가 있으며 이미 10여권의 경제방면의 저작을 발표했다.

2007년에 젠위안초의 친구의 형은 간병이 악화되어 장기를 이식하지 않으면 얼마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다. 친구는 중계를 통해 아주 빨리 중국에서 제공자를 찾았고 곧바로 수술 받을 준비를 했다. 그러나 수술전 병원에서 준비한 일종 백담백의 혈액제품이 가짜임이 발견돼 수술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친구는 젠위안초에게 일본에서 백담백을 구입해 북경으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이때문에 젠위안초는 중공의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적출의 검은 내막을 요해할 수 있었다. 아래는 인터뷰의 일부분 내용이다.

기자: 젠위안초 선생님, 당신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젠위안초: 북경에 도착한후 저는 약품을 병원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하루 전에 친구의 형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접대를 책임진 의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제공자는 바로 옆칸에 있는데 당신이 한번 보겠습니까?” 그가 커튼을 열자 저는 제공자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볼수있었는데 한 21

세의 젊은 남자였습니다. 마약을 놓았기에 보기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일본에서 유학한적이 있었기에 일본어에 능통했습니다. 의사는 제공자는 나쁜사람이고 사형판결을 받은 죄범이라며 어차피 죽을 것인데 차라리 죽기전에 공헌하는 편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주 젊기에 간장이 매우 건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고 묻자, 의사는 “공포조직의 일원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는 도대체 무슨 행위를 했는지를 캐묻자 의사는 “파룬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중 환자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수술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자: 그 청년을 봤을때 그는 당시에 어떤 모습이 었습니까?

젠위안초: 저는 그가 거기에 누워 있을때 손과 발에 모두 붕대를 감은 것을 보았는데 하루전 그의 두 손과 발의 근육을 모두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의사는 저에게 그가 도망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 사람이 두려울 때면 신체가 움츠어들면서 장기의 품질에 영향주기 때문에 그들이 청년에게 근육절개 수술을 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기자: 장기이식을 할때 그는 살아 있었습니까?

젠위안초: 당연하지요. 제가 가서 그를 볼때 그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장기를 적출하면 이 사람은 죽거든요. 때문에 생체에서 적출한다고 하지요. 장기를 적출하는 동시에 수술을 하면 효과가 가장 좋지요. 시체는 후에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기자: 중공관원도 참여했습니까?

젠위안초: 당연하지요. 중공관원의 참여가 없었다면 장기이식은 할 수 없으며 많은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우리는 특별출구를 사용했는데 이는 단지 전문 고급관원에게만 마련된 비밀 지하통로였기에 저는 다른 차량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를 접대한 고위관 외에 또 총을 든 무장 경찰 4명이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북경까지 무장경찰차가 앞장서서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고위관이 무슨 (2면에 계속)

한국 공무원 “매일 소주 너덧 병 마시던 술을 한 달 만에 끊었어요”

[명후이왕] 김영표 (음역) 는 금년에 55 세이며 한국 소년징계 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그는 과거에 술을 목숨처럼 여겼고 술중독이 심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 그는 심지어 술에 취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고 , 양상해진 신체에 겨우 숨만 붙어 있었다 . 외삼촌의 한마디 말이 아니었다더라면 그는 오늘까지도 폐인마냥 지할철마저도 스스로 탈 힘이 없는 사람이 었다 .

■ 그때의 김영표는 정말 사람을 걱정 시켰다

15 년 전 , 누가 봐도 김영표의 모습은 걱정스러울 정도였다 . 170cm 키에 체중은 겨우 49kg 의 마른 체격에 얼굴빛은 검고 탁했다 . 그는 밥을 먹는것이 마치 모래알같이 쌀알을 넘길 수 없었고 겨우 국물만 먹지로 마셨다 . 그때의 그는 바람만 불어도 휘청거렸고 , 차가 있어도 운전하기 힘들어 택시를 불러야 했으며 , 지하철을 타는 것도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조금만해도 며칠간 몸져누워야 했다 .

2007 년 여름 , 그는 유난히 외삼촌이 뵈고 싶어 무작정 찾아갔다 . 그때 혼자서 외삼촌을 찾아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 그의 외삼촌은 반나절 동안 그에게 중국에서 파룬궁이 박해받는 상황과 파룬궁이 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몇가지 이야기를 들려줬다 . 외삼촌은 몸이 성치 않은

그에게 “파룬궁 수련을 한번 해봐” 라고 말했다 . 며칠후 외삼촌은 ‘전법륜 (轉法輪)’(파룬궁 수련을 지도하는 주요서적) 을 고이 들고서 그가 근무하는 직장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말했다 . “이 책을 스승으로 삼아 소중히 여기고 한번 수련해보게 .”

■ <전법륜 (轉法輪)> 을 읽고 술을 끊다

김영표는 외삼촌이 가져다준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 그는 책을 긴 시간 보면 피곤해 했는데 , 이책은 오래동안 보았지만 조금도 졸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신이 또렷해졌을 뿐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이었다 . 한번 앉으면 그는 꼬박 4 시간 동안 읽기도 했다 . 학교 시절에도 열심히 공부하지 못했던 그가 난생처음 겪는 경험이었다 . 김영표의 퇴근 후의 일상도 변화가 발생했다 . 이전에는 술 생각에 퇴근 시간만 기다리던 그가 현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전법륜 (轉法輪)> 을 볼 생각만 했다 . 그는 2~3 일 만에 480 페이지의 <전법륜 (轉法輪)> (한문) 을 모두 읽은 뒤 , 또다시 계속 읽었다 . 며칠이 지나서 그는 자신이 지난 며칠간 술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깜짝 놀랐다 . 이전에는 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던 자신이 지금은 한 , 두주일을 술 없이 멀쩡히 지낸 것이다 .

수련한지 한달후 그는 술을 끊었다 . 김영표의 이런 변화는 그의 집 식구들로 말하면 기적이 었다 . 그의 부모님은 늘 그가 술을 마시고

길에 쓰러지지는 않았는지 , 혹은 이외의 일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 혹은 술을 많이 마셔 기타병을 유발하지는 않았는지를 몹시 걱정했었다 . 그가 술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들은 특별히 기뻐하면서 말했다 . “이후에는 네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시름 놓는다 .”

김영표의 아버지는 “너는 너에게 파룬궁을 수련하라고 알려준 외삼촌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야한다 . 외삼촌이 아니었다더라면 너는 언녕 폐인이 돼 버렸을거다 !” 고 말씀했다 . 술을 끊은후 , 그의 건강도 모두 전변되어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맑아졌다 . 기력이 회복되니 힘든 농사일에도 꼬떡없었다 . 180 도로 전변된 그를 보며 어머니는 줄곧 “파룬따파는 정말 너무 신기하다” 라고 말씀하셨다 .

1998 년 , 북경 무한 , 대련 및 광둥에서 구성된 당지 의학 전문가들이 만명 민중에게 5 차례의 의학조사를 조직했다 . 조사결과 파룬궁 수련에서 병치료 총유효률은 97.9 % 에 달했다 . 같은해에 전 인대위원장 교석 (乔石) 은 180 여명 노간부들을 이끌고 파룬궁에대해 반년넘는 조사를 거쳐 중공중앙 정치국에 “파룬궁은 국가에 대해 민중에대해 백가지 이로운 점만 있을뿐 해로운점은 하나도 없다 .”라는 조사결론을 발표했다 .

(1 면의 계속) 급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꽤나 권리가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 그가 공항에까지 마중나왔을때 전문차가 직접 비행기 아래까지 몰고 들어왔고 , 그다음 해관직원이 비행기 아래에까지 와서 나를 위해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 그런후 전문차로 “귀빈구”라고 적힌 곳으로 나갔는데 모두 전문용 통로와 비밀통로를 지났습니다 . 이 일은 정말 아주 잔인합니다 . 3000 만엔 (일본돈) 을 지불하고도 두사람의 목숨을 바쳤는데 누구한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

사진뉴스

7월 20일, 한국 파룬궁 수련생들, 서울 도심 서반(反)박해 대행진을 개최했다. 1999년 7월 20일, 중국공산당(중공)은 심신수련단체인 파룬따파(法輪大法, 파룬궁)에 대해 전면적인 탄압을 개시했다. 이후 매년 7월 20일을 즈음해, 전 세계 파룬궁 수련생들은 박해진상을 알리고 박해 종식을 촉구하는 행사를 각지에서 열고 있다.



조선족
박해
소식

최금실 노인이 경찰에 의해 납치돼 호흡기도(气管)가 잘리고 몇시간 내에 기이하게 사망하다

[망후이왕] 흑룡강성 할빈시 평방구에 거주하고 있는 88세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최금실 노인은 아주 건강했다. 2022년 4월 13일, 자택에서 파룬따파 저서를 읽어 경찰에게 납치돼 몇시간 내에 기이하게 사망했다. 경찰은 시체를 강제로 끌고가 모든수를 써서 가족이 검시하지 못하게 했다. 경찰이 사망증명을 주지않아 노인의 시체는 오늘날까지 냉동실에 누워있다.

최금실이 박해받아 사망한 정황 보충

2022년 4월 13일, 한무리 경찰이 경찰번호와 공작증도 없이 아무런 사법문건도 제시하지 않은 전채하에 불법으로 최금실의 자택에 침입했다. 그들은 야만스럽게 노인이 모시는 대법사부님의 법신상과 대법책 등 개인 물품을 강탈했다. 그리고 두 젊은 경찰이 야만적으로 88세 노인을 끌어당겨 실내의 소파에 앉도록 강제했다. 잇따라 다른 경찰이 노인이 생존하는 퇴직금을 훔쳐갔다(금액수 불명).

노인은 야만적인 소란과 납치를 당한뒤 몇시간내에 불행하게 사망했다. 그의 생명의 최후일각에 가족이 신변에 없었고, 오직 경찰, 의사와 국보대대인원들만 있었다.

최금실의 작은 아들은 경찰이 모친의 병이 위급하다고 알린후 신속히 242 병원 급진실에 도착했다. 국보경찰은 아들더러 의약비를 지불하라고 했고 이때 급진의사가 걸어와 노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그의 아들은 경찰과 쟁논이 생겼는데 경찰과 급진의사는 끝까지 아들에게 모친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 왜 아들에게 모친의 마지막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하는가? 경찰과 의사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가?

노인의 아들이 다른 가족을 알리러 나간 틈에 경찰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화장터의 차량을 불러 강제로 최금실의 시체를 실어갔다. 가족이 전부 도착한후 발견하고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화장터 차량은 경찰차의 협박하에 화장터로 줄곧 달렸다. 그의 가족이 뒤를 따라서 화장터에 도착했으나 그들은 입실과 시체를 보는 것마저 거부당했다.

4월 15일 가족은 경찰의 감시하에 겨우 화장터에 들어가서 총망히 노인의 시체를 볼 수 있었다.

최금실은 경찰에게 납치된

후 몇시간내에 사망했다. 그 누구도 이 기간에 무슨일이 발생했는지 모른다. 그의 호흡기도가(气管) 잘렸고 몸에 입었던 옷차림도 온정하지 않았으며 신발도 신지 않았다.

최금실은 사망된지 이미 두달이 넘었지만 오늘날까지 추운 냉동실에 누워있다. 중국사람은 사망자를 땅에 묻어 안정을 찾게한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은 사망증명을 떼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합리한 해석도 하지 않고 있다. 중공의 사악한 멸적인 정책은 노인으로 하여금 지금까지 수의도 입지 못하게 했고, 가족은 또 사망자의 기존수속이 없기에 화장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한다. 할빈시 평방구 국보대대 경찰의 이상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했고, 기타 사악한 행위는 검은 악세력과 같기에 마땅히 검은 사악 제거명단에 올려야 한다.



▲ 고인 : 최금실

16 만원어치 12 개 감시카메라로 파룬궁수련생 저우상양 (周向阳) 을 감시하다

[명후이왕] 하북성 진황도시 파룬궁수련생 저우상양은 억울하게 7 년 감옥살이를 당하고, 2022 년 3 월 1 일에 천진빈해감옥에서 나왔다. 그러나 인신자유는 커녕 여전히 엄밀한 감시를 받았다. 중공 인원은 16 만원어치 10 여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를 밤낮으로 감시했다.



▲ 저우상양

저우상양은 북방 교통대학을 졸업한 후 천진 철도 제 3 탐사 설계원 공정경제 사무실에 배치됐는데, 업무에서 뛰어나자 회사는 그를 천진 대학으로 보내 투자경제학위를 취득하게 했다. 1998 년 전국 제 1 차 건설비 엔지니어 자격에 합격해 당시 국내 건설비 엔지니어 60 명 중 한 명으로 됐다.

파룬따파 (法輪大法) 진선인 (真·善·忍) 법리의 지도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종래로 고객에게 사사로이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세상기풍이 날따라 추락하는 사회에서 뛰어난 청년이었다. 그러나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저우상양은 여러차례 중공경찰에게 납치되어 몇차례 불법노교와 두차례 불법판결을 받았다.

2003 년 5 월 31 일에 불법적으로 중국공산당경찰에 납치돼 불법적인 징역 9 년을 선고받았고, 천진 빈해감옥에서 밤새도록 전기고문을

당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다. 또 30 일 연속 밤을 새웠고, 여러 차례 독방에 갇혔으며, 야만적인 음식물 주입 등 고문을 당했다. 2008 년 6 월 말, 저우상양은 박해에 저항하기 위해 강베이 (港北) 감옥에서 1 년 넘게 단식했다. 그의 체중은 겨우 40kg 에 불과했고 몸이 허약해 걸을 수 없었으며 대소변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었다. 2009 년 7 월 28 일에 이르러서야 병보석으로 풀려나 치료를 받았다.

2011 년 3 월 5 일, 저우상양은 탕산 (唐山) 의 세집에서 다시 납치돼 감옥으로 이송됐다. 그의 아내 리산산 (李珊珊) 은 남편을 위해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로 보복을 당해 두 차례에 도합 총 3 년 넘게 불법적인 노동교양 처분을 받았다. 2013 년에 노동교양제도가 해체됐는데 리산산은 스자좡 (石家莊) 여자노동교양소에서 마감으로 나온 사람이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은 오래 가지 못했다. 2015 년 3 월 2 일 오전 7 시, 천진 경찰이 다시 문을 부수고 들이닥쳐 저우상양 부부를 납치했다. 저우상양은 불법으로 무고하게 7 년 형을 선고받았고, 리산산도 불법으로 6 년 형을 선고받았다.

정황을 잘 아는 사람이 폭로한데 근거하면 감옥에서 저우상양은 옥경과 죄인들의 잔혹한 구타와 성적인 박해 등을 당했지만 그는 생명으로 법을 보호했다. 단식으로 5 년 넘게 항의하면서 박해받은 그의 몸은 장작처럼 말랐다. 그는 늘 반박해와 가부좌를 견지했는데 그가 앉았던 휠체어에 아름다운 우담바라꽃이 피었는가 하면 그는 가부좌할 때 선녀가 꽃을 뿌리는 것도 보았

다. 저우상양은 여러번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를 높이 외쳐 사악을 크게 진감시켰고 사악은 놀라서 그를 바닥에 쓰러눕힌채 입에 천이나 만두를 밀어 넣고는 고추물을 그의 얼굴에 뿌려 그를 질식에 이르게까지 했다. 그는 박해받아 기관 쇠퇴로 감옥병원 (신생병원) 에서 응급치료까지 받았다.

금년 3 월에 7 년의 감옥살이를 끝마친 저우상양은 여전히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핍박으로 하북성 창리 (昌黎) 마튀 (馬坨) 촌의 부모집으로 돌아왔다. 하북성과 진황도의 두개 정법위, ‘610’은 공안국의 지시하에 창리현 공안국 국보경찰은 촌내와 저우상양의 부모집, 형님집에 적어도 12 개 (16 만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고 심지어 그의 형수 부모집 부근에까지 설치했다. 저우상양이 집문을 나서기만 하면 바로 미행을 당하는데 결국 형식이 다른 옥살이나 다름없다. 집식구들도 늘 공포중에서 생활해야 했고, 자신의 친인이 또 중공에 의해 납치, 감금, 구타를 당할까봐 걱정해야 했다.

나쁜일을 많이하면 필연코 자기를 해친다. 악명으로 이름난 천진시 빈해 감옥의 악경들은 파룬궁수련생을 구타하는데 수단이 잔인하며, 인성을 상실했다. 근간에 잇따라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 여러명 청중년 옥경이 목을 매거나 혹은 불치병에 걸려 급사했다. 이로 인해 안에서 일하던 옥경들도 종일 공포감에 휩싸여 불안해 한다.

전통문화

일념으로 운명을 바꾸다

[명후이왕] 청나라 말 민국 시기에 위역 (魏域, 1860-1927)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는 철산 (鐵珊), 절강 산음 사람으로, 서예에 뛰어나고 음률에 통달했다. 위역은 과거에 낙방했지만 그후 한가지 일에서 신념을 바뀌고 과연 자신의 운명을 개변하여 3년후 과거급제에 합격했다.

어린 시절, 위역은 무예를 배웠고, 십 대 때는 권술 (拳術) 로 유명했으며, 의협심으로 힘을 썼다. 1882년, 그는 처음으로 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후저우에는 관상을 잘 보는 광문 (廣文) 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광문은 위역의 관상을 본 후, 그 얼굴이 문장보다 못하니 뜻밖의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하며, 과거급제는 희망이 없다고 했다. 과연 그해 가을 시험 때 위역은 과거에 낙방했다. 위역은 의기소침해져 정처 없이 방랑하고, 종종 술을 마시며 울적함을 달랬다. 치씨 성의 한 노부인이 위역이 눈에 거슬려 계속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험담을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화약을 들고 노부인 집에 가서 집을 불태우려고 했다. 그러나 그의집 주변에 모두 널빤자로 지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었다. 위역은 그것을 보고 탄식했다. ‘노부인은 비록 입지만, 그 무지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나? 옥석구분 없이 강그리 타버리게 할 수는 없다.’ 이 일념의 차이로 위역은 생각을 바꿔 노부인의 집을 불태우지 않았다.

3년후, 위역은 다시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 마침 다시 광문을 만났는데, 광문은 놀라며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당신 얼굴이 이미 바뀌었고, 형색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선행을 했습니까?” 위역은 자신이 일념으로 가난한 집을 불태우지 않은 일을 광문에게 말했다. 광문이 듣고는 말했다. “이 일념이 많은 생명을 지켜서, 당신 명 (命) 을 바꿨구려.” 그해 위역은 과연 과거에 급제했다. 위역의 경험은 옛사람이 말한 것과 같다. “사람 마음 속에 선한 마음이 생기면, 아직 선을 행하지 않았어도 상서로운 신령이 이미 그 사람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다.”

혼비백산의 한막이 나를 철저히 개변했다

[명후이왕] 나는 개인기업의 대형 화물차 기사로서 경상적으로 먼길을 떠나곤 했다. 비록 남들보다 월급이 높긴하나 이 일은 아주 고생스럽고 피곤한데다 늘 위험이 따랐다.

나의 어머니는 파룬궁수련생이다. 나는 파룬따파가 그에게 가져다준 변화를 견증했다. 어머니는 온몸에 병투성이였으나 돈 한푼도 쓰지않고 연공하면서 다 나았다. 따라서 성격도 쾌활하고 명랑해 졌으며 우리집에는 또 예전처럼 화목함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때문에 나는 어머니가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을 아주 지지했다. 그러나 나는 파룬궁제자들이 말하는 파룬궁의 그런 신기한 일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혹은 믿지 않았으며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대법의 진상 호신부는 또 계속 몸에 지니고 다녔다.

2020년 6월의 하루 나는 석재료를 가득 실은 긴 차간을 이끌고 화북지역에 들어섰다. 길의 좌측에는 산이 있고 우측에는 깊은 벼락이여서 도로상황은 매우 위험했다. 떠난지 얼마안돼 과중운전인데다 울리막길이여서 아니나다를까 과연 차머리와 차간의 연결부위에서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바로 연결고리가 끊겼다는 느낌이 들었다. 따라서 차간은 힘껏 옆으로 넘어지면서 “광!” 하는 소리와 함께 벼락밑으로 굴러내려갔다. 나는 꼼짝도 못하고 눈을 꼭 감고는 죽기를 기다렸다……얼마후 동정이 사라지자 눈을 떠보니 내가 여전히 차 안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죽지 않았어? 어떻게 된 거지?’ 나는 조심스레 차에서 내렸는데 눈앞에 펼쳐진 한막은 나로하여금 깜짝 놀라게 했다. 커다란 재중차간은 거꾸로 된채 운전석은 굴러떨어진 차간과 함께 벼락으로 추락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든든하게 벼락끝에 얹어져 있었다. 아니었더라면 나의 목숨은 아마도……

이번 추락사건은 너무나도 괴상하고, 불가사이했다! 당시에 나는 단지 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혼이 빠진 나는 집에 돌아와 이 해석할 수 없는 일을 말했는데 온집식구들은 모두 식은 땀을 흘렸다…이때 어머니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애야, 어서 사부님께 절을 올려라, 사부님께서 너의 명을 구해주신거야!”

아무것도 믿지 않던 나의 마음이 진감받아 꿈에서 깨어난듯 눈물이 찼찰 흘러내렸고 동전에 오염된 영혼은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나의 생명의 깊은 곳에서부터 종래로 없었던 대법에 대한 경위와 대법사부님에 대한 감은이 솟아올랐다. 나는 진심으로 사부님께 절을 올려 사부님의 명을 구해준 은덕에 감사드렸다!



사람을 구하는 진상자료



엄마를 절망에서 구해준 전단 한 장

[명후이왕] 엄마는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해에 갔다. 전문의는 엄마의 병이 드문 병이어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그는 우리에게 폭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결과를 말해줬다. 그는 어머니의 문제가 혈관 울혈과 관련된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다른 나라에서도 보고된 사례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완치된 사례는 없다.

할머니는 엄마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민간 처방을 사방으로 찾고 있었다. 할머니는 늘 혼잣말을 하셨다. “우리 딸은 정말 살아날 수 없는가? 백발의 내가 정말 젊은 딸을 먼저 보내게 되는 건가?”

어느 날 할머니는 집 앞에서 파룬따파 전단을 발견했다. 소개 글에서 그 수련이 치유와 건강에 기적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할머니는 그것을 엄마에게 보여주며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엄마는 대강 읽어본 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제쳐 두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빨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집 현관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거기에 서 있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힘차고 들뜬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엄마는 잠을 자고 나서 힘이 생겨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래서 엄마는 일어나서 점심을 준비하고 오랫동안 오지 못했던 할머니 댁으로 걸어온 것이다.

엄마도 나중에 이상함을 느꼈다. 원인이 무엇일까? 병이 재발한 후에 평소처럼 한약을 계속 먹었는데 거의 호전되지 않았다. 그 외에 엄마는 다른 무엇을 하지 않았다. 집에 누워 있었을 뿐이다. 혹시 그 파룬따파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을까? 요전 날 옆으로 치워둔 전단을 그냥 간단하게 읽었고 그것이 사실이기를 바랐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가능한가? 그 경험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그것을 절대 믿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수련하는지 아직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그것이 엄마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어머니는 연공을 배워서 약을 버렸고 다시는 약이 필요 없었다. 그 병은 재발하지 않았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 이 난치병은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라졌다!

“저는 파룬궁 자료를 보기 좋아합니다.”

[명후이왕] 2022년 5월 어느 날, 나는 차를 몰고 한 수련생과 함께 진상을 알리러 장터로 갔다. 시장에 도착하자, 멀리서 한 노부부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파룬궁진상 호신부입니다. 성심껏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 찌싼런하오 (真善忍好)’를 염하시면 이 아홉 글자가 당신의 평안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호신부를 받은 할아버지는 “파룬궁 자료를 즐기고 있어요. 이런 제자를 가르치신 파룬궁 사부님께 정말 감탄해요. 당신들은 정말 쉽지 않아요. 나는 항상 자전거 바구니에 들어있는 파룬궁의 자료를 받지만,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나도 길림 사람이니 당신들 사부님이랑 동향이네요. 당신들 사부님 잘 계시죠?”라고 물었다.

나는 “네, 우리 사부님께서는 외국에서 법을 전수하십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당신들 사부님 건강하시라고 안부 전해주세요.”라고 부탁했고 나도 합장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나는 그분께 공청단 소선대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권했고 그는 탈퇴했다. 그리고, 진상 자료, 이동식 저장 진상 디스크, 인터넷 봉쇄 돌파를 위한 QR 코드도 드렸다. 그는 “예전에 늘 명후이왕을 봤는데 나중에 접속할 수 없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이걸로 접속할 수 있는데 휴대전화로 스캔하면 돼요.”라고 말했다. 그는 기쁜 나머지 두 손을 모아 인사하며 헤어졌다. 이 노인을 보는 내 마음은 정말 기뻐다.

6월 어느 날, 나는 차를 몰고 다른 시장으로 진상을 알리러 갔다. 맞은편에서 정정하고 카리스마 있는 한 노인이 다가오자 나는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아저씨에게 평안을 지키는 호신부를 드려요. 돈을 받지 않는 값진 보물인데 건강과 평안을 지킬 수 있어요.” 나는 호신부에 적혀 있는 아홉 글자를 가리키며 ‘파룬따파하오, 찌싼런하오’ 이 아홉 글자를 성심성의껏 염하면 위험이 닥칠 때 목숨을 지킬 수 있다고 알려줬다.

호신부를 받은 그는 “저는 파룬궁 자료를 보기 좋아합니다.”라며 “이 사회는 파룬궁이 가장 정직하며 정말 당신들 사부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그에게 감동한 나는 두 손을 모아 감사를 표했다.